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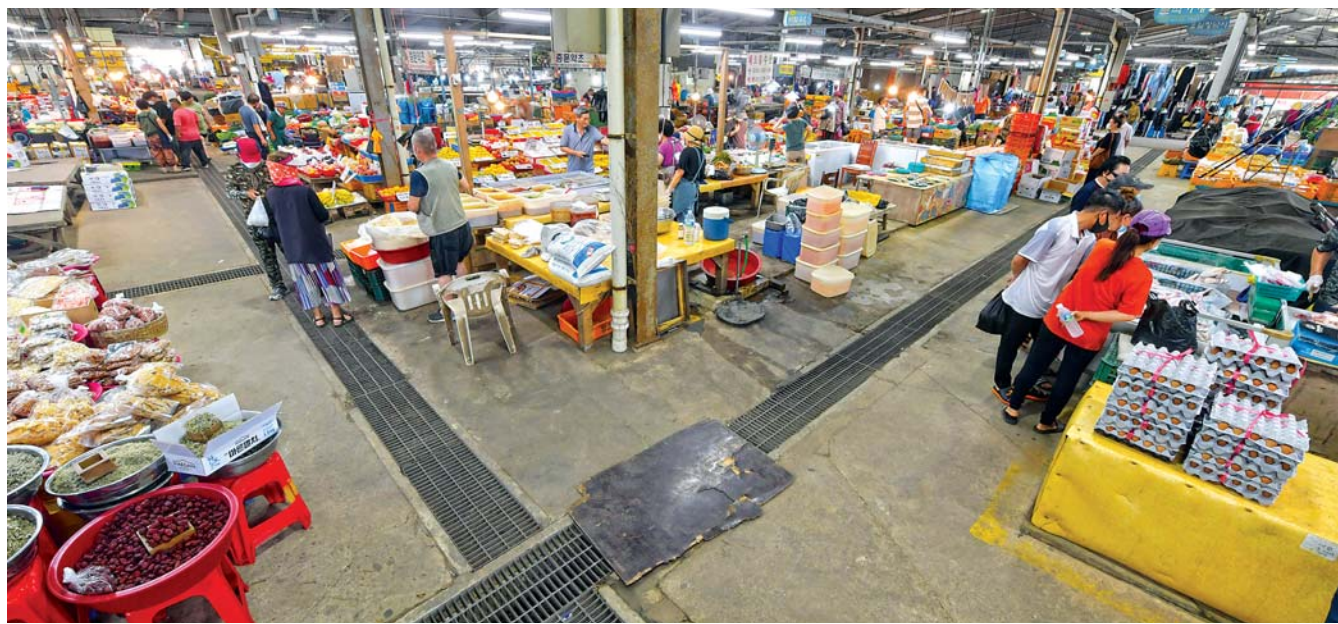
‘산방산온천發’ 코로나19 확산 위기 고조

31일에도 추가 1명 발생 등 모두 6명으로 늘어 ‘화악’도, 진단검사 확대 지원속 추가 확진 발생 가능성도

‘산방산탄산온천발’ 코로나19 추가 확진이 31일에도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감염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화악’로 부상한 산방산탄산온천을 이용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동선이 속속 공개되면서 지역사회내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A씨가 이날 제주 46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산방산탄산온천 관련 확진자는 29·33번 목회자 부부를 포함해 40·42·44·46번 등 6명(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늘었다. >>관련기사5면

현재 제주도는 목회자 부부가 방문했던 지난 23일 외에도 제주 42번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26일과 28일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가 확진자가



셀러한 대정오일장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31일 대정오일장이 셀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나올 가능성이 있어 향후 발생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제주 40번 확진자 A씨가 방문하면서 비상이 걸렸던 공식사회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도는 A씨가 들렀던 제주도청과 제주시청(도청 6곳, 시청 6곳, 연동주민센터, 조천읍사무소, 제주동부보건소 등 15개 부서) 소속 공직자 총 55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556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행정시 소속)은 이날 밤 9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A씨와 밀접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공직자 17명(도청 3명, 제주시청 6명, 조천읍사무소 1명, 연동주민센터 7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 이날 공개된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침 증상 발현 2일전인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도청·시청을 비롯해 19곳(접촉자 52명)을 방문하는 등 시내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2번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확진 판정일인 29일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비롯해 대정읍과 안덕면 소재 8곳을 방문했다.

이와함께 8월 30일 밤 10시쯤 방글라데시 국적의 제주한라대학교 유학생 B씨도 제주 45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의 접촉자 1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와 산방산탄산온천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아동 보호 및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남원·대정읍과 안덕면 지역 내 어린이집 31곳에 대해 8월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임시휴원 명령을 내렸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020 세계유산축전’ 오는 4일 개막 이달 20일까지 17일간의 특별한 세계자연유산여행

코로나19 상황 감안 인원 제한 6-30명 이내 소단위 그룹 진행

올해 처음 열리는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성산일출봉 등에서 ‘2020 세계유산축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을 품고 있는 제주의 ‘비밀 공간’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구좌읍 월정리가 지 흐르면서 만들어진 동굴과 지질학적 가치들이 담긴 20km 구간을 ‘불의 숨길’이라는 투어 코스로 개발했으며, 세계유산 특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통해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용암협곡길, 뽕굴길, 만장굴과 김녕굴의 미공개 구간도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축제기간 중 코로나19 상황과 미공개 구간의 자연유산 환경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운영된다. 대부분의 체험 일정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6-30명 단위의 소규모별로 운영되며, 별도로 열리는 기념식이나 기

념 공연도 회당 1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숨길 순례단, 세계자연유산 특별 탐험대, 불의 숨결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과 미공개 구간인 자연유산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비해 시간별 탐험 정원을 6명으로 제한했다. 탐험 참가자에게는 ‘탐험 인증서’도 발급된다.

공식 기념식은 9월 19일 성산일출봉 우뚝개해안 일대에서 ‘세계자연유산 기억의 날’을 주제로 진행된다. 20일과 21일 오후에는 실경 공연도 마련된다.

이 밖에 불의 숨길과 만장굴에서 펼쳐지는 아트 프로젝트, 토크 프로그램 ‘가치 나눔 공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비해 기존 프로그램 중 세계유산지역인 성산일출봉·거문오름·만장굴 등에 빛의 기둥을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진행한다.

또 만장굴 전 구간과 불의 숨길 전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제주의 청정 자연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유산축전 홈페이지(www.worldherita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오늘 오후부터 태풍 ‘마이삭’ 간접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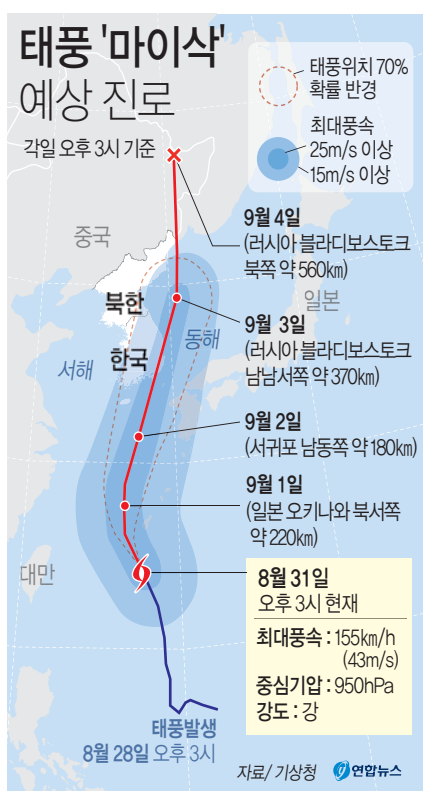
2일 오후 8시 제주 가장 근접 강도 ‘매우 강’·초속 30-50m 만조겹쳐 해일 우려 유의해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강도 ‘매우 강’인 상태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해 1일 오후부터 제주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37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마이삭은 현재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hPa)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3m, 강풍반경 380km에 달하는 강도 ‘강’의 중형 태풍이다.

태풍 마이삭은 9월 1일 오전 3시 강도 ‘매우 강’으로 발달한 뒤, 이 세력을 유지한채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 9월 2일 오후 3시쯤에는 서귀포 남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같은날 오후 8시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에 진출하며 제주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일 밤 제주도 남쪽면바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기 시작해 이후 3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1일 오전 9시부터 산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3일 오후까지 100-300mm, 산지 등 많은 곳은 최대 400mm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순간최대풍속 초속 30-50m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아울러 2일부터 3일 사이 제주 전 해상에서 2-9m높이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도와 남해안 등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안가나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수능 원서접수 오는 3-18일... 대입 일정 본격

재학 고교·도교육청서 실시 제주출신 수도권 수험생은 서울성동광진교육청서 가능

이번 주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대입 일정이 본격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와 도교육청에서 9월 3-18일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12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단,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시험시간이 일반 수험생의 1.5~1.7배 연장 운영된다.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N수생(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제주지역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는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와 도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이루어진다.

제주도내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타시·도 졸업생(주소지가 제주도인

경우) 등은 도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각각 응시원서를 받는다.

특히 도교육청은 제주지역 출신이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9월 17-18일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직원을 파견해 현지에서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스코마트에서는 업소는 물론 가정집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 | 냉장 | 냉동 | 대용량식품 | 가정용수입식품 | 음료 | 과자 | 잡화

언제나, 누구나,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제스코마트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44(도남동) ☎064)724-8000
 서귀포점 서귀포시 상호로 39(상호동) ☎064)732-7000
 신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9(연동) ☎064)727-5000

영업시간 : 07:00 ~ 24:00